

내일부터 3일간 '투표하는 날'

총학생회 · 4개 단과대 선거 실시 ... 중도 앞 등 9개 투표소

소중한 권리, '한표'를 행사할 수 있는 2003년도 학생회 선거가 내일(18일)부터 3일간 학내 곳곳에서 치러진다.

투표는 명진관 등 4개 단과대 건물 로비와 중앙도서관 앞에 비치된 총 9개 투표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야간강좌 재학생은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가능하다. 개표는 오는 20일 자정 분관 중앙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총학생회 선거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된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임수욱·화공4)는 이번 선거부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중앙도서관에 투표소를 마

련해 소속학과에 관계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선거는 총학생회를 비롯한 △문과대 △경영대 △사범대 △야간강좌 학생회장 후보자가 출마했으며, 총학생회 등 미등록된 단위는 다음에 3월 보궐선거를 통해 학생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자주'의 시대, 일만이천의 여객 동무'를 모토로 총학생회 선거에 입후보한 구자룡·이승효 조는 재단개혁을 통해 학교재정구조를 정

화하고, 제3캠퍼스 이전 시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구자룡(야간강좌 영

문4) 총학생회장 입후보자는 "현재 본교는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만큼 재단 전입금을 늘려야 하며,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 재단개혁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교측이 제3캠퍼스 이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전여부 등에 대한 학내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개적인 교수채용을 위한 '공개강의평가' 실시 △불교대와 법과대 이전에 따른 동국관·문화관 지역 공간배치논의를 위한 공간소위원회 구성 △학생들의 의사소통을 활발히하기 위한

과학생회 발전위원회·이동 총학생회 구성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밖에 학내·외적으로 이라크파병 반대 서명운동과 △청년실업을 개방 반대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총학생회가 구성해야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학교측에 담당하게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며 투표참여를 호소했다.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는 오늘(17일) 선거운동 마지막날을 맞아 해 공약설명과 선거 출마자의 공연인 '게릴라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성민 기자
qwertewq@dongguk.edu

건학 100주년 D-900일 행사

토론회·음악 페스티벌 등 ... 학내·외 구성원 참여 이끌 것

본교가 오는 20일 건학 100주년 D-900일을 맞이해 음악페스티벌 등 학내·외 구성원의 참여를 이끌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학교의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보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우선 음악 페스티벌이 대입수험생을 대상으로 내일(18일) 오후 2시부터 장충체육관에서 진행된다. 이는 학교 홍보를 통해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1부=입시지도 △2부=본교 출신의 인기가수 그룹 S와 빈, 백상음원단, SSID 등의 공연이 진행돼 축제분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사는 선착순으로 4천명이 입장 가능하며 참가 희망자는 수험표 또는 학생증을 갖고 행사 시작 20분전까지 도착하면 된다. 또한 '일류동국' 도약을 위한 '포럼'이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학술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포럼은 학내·외 구성원이 모여 본교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다. 세부주제는 △본교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일류동국 도약을 위한 동국의 강점을 살려라 등이고 이후 참가자들의 자유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진환 건학 100주년 기념사업회 과장은 "외부 관계자들도 참가해 본교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많은 구성원의 참여를 당부했다.

이밖에 오는 20일부터 홈페이지에 '퀴즈'로 배우는 건학 100주년'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는 매일 문제를 출제하고 맞춘 학생을 대상으로 기념품 등을 증정하는 것으로 학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서울캠퍼스 경주캠퍼스에서 진행된 현행 봉사 결과 640여명이 참가해 성황리에 끝났다.

한편, 지난 건학 100주년 D-1천일 행사부터 시작된 100만등달기 운동은 현재까지 1만 3천여개의 헌등이 모여 13여억원의 기금이 조성됐다. 이와 관련해 대외협력처의 한 관계자는 "동문회, 불교계 인사를 대상으로 한 불교 병원 투어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건학 100주년 슬로건 공모 결과 최림길 씨의 '동국사랑 아름답게 동국미래 희망차게'가 최우수상을, 박성호(정보산업4)군의 '꿈이 있는 동국, 미래가 있는 동국'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앞으로 본교는 건학 100주년 전까지 100일 단위의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황주상 기자
hjs0228@dongguk.edu

전공결정 오는 24일부터

2004학년도 1차 전공결정 신청이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전공배정 기준은 1학년 1·2학과와 계절학기 누계 성적을 합한 평균점수이며 1학년 재학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불교대 △사

과대 △경영대 소속은 평점평균 2.5 이상, 30학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불교대 △사과대 △경영대 △생자대는 2학년 1학기말 2차 전공결정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전공배정 결과는 다음해 2월 13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동대 학술·문학상 시상

총 11명 수상 ... 영어수필대회 시상 함께 진행

본사가 주최한 제41회 동대학술상, 제18회 동대문학상 시상식이 지난 14일 중앙실에서 열렸다.

학술상 수상자는 인문과학 부문 △장원=이승원(철4)의 '朱熹 人物理論에 나타난 理氣 關係에 대하여' △가작=전유진(인철3)의 '자아나 교도의 식습관으로 본 그들의 교리와 그 비판', 사회과학 부문 △장원=정준환(정의4)의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과 민간기관의 역할' △가작=이석연(경행4)의 'Effect of College Life on Drugs, Alcohol and Sex', 자연과학 부문 △가작=이재민(생물4)의 'Sawdust Media for the Mycelial Growth and Fruiting Body of Sparassis crispa' 가

수상했다. 문학상 수상자는 소설 부문 △가작=박철홍(문창4)의 '봉정숙 헤어 샵', 전향성(국문3)의 '해무도', 시 부문 △장원=박소란(문창3)의 '창작수업이 끝난 강의실에 앉아' △가작=선사인(문창2)의 '흰나비가 날아오는 날이면', 희곡·시나리오 부문 △장원=김지연(문창3)의 '첫눈 오는 골목' △가작=최문애(문창3)의 '눈 속에 봄을 묻다'가 수상했다. >관련기사 6~7(특집)면

한편 Dongguk Post가 주최한 제12회 영어수필경시대회에서는 △장원=윤나래(영문4) △가작=김재은(한외3) △특별상=김애진(영문3) 양이 수상했다.



예비 세내기 모여라 ...

2학기 수시모집 면접이 지난 15일 진행됐다. 일반 우수자 등 6개 전형에 지원한 입시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면접고사에서 재학생들은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예비 후배들'에게 차를 나눠주며 이야기를 나눴다.

김진성 기자 yearn@dongguk.edu

‘교육’ 발전 방향 제시 ⑥ 간담회(해설보도면)

홍세화·손석희 초청 강연회

오는 17일, 19일 중앙당에서 열려

2003 민족동국 가을 강연회 '생각의 발을 일구는 코끼리'가 오는 17일(17일)과 19일 진행된다.

총학생회(회장=유영빈·경영4)와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이안희·식자4, 이하 학복위)가 주최하는 이번 강연회는 △17일=한겨레

신문 기자 홍세화 '지성인을 위하여' △19일=방송인 손석희 '언론, 함께 생각해 볼 문제들'을 주제로 각각 오후 6시와 오후 5시 중앙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안희 학복위원장은 "학생들에게 사회현상에 대한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적우수장학 신청

오늘부터 28일까지

2004학년도 1학기 성적우수장학 신청이 오늘(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

전체 등록금의 30%가 감면되는 우수장학은 이번 학기 평점평균이 3.0이상이 재학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단, 교내·외 기타 장학금 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장학금 신청서 △사회봉사인증서 △재산세 증명서 등을 학업지도교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는 본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학업성적=60% △가정형편=20% △사회봉사=10% △학업지도교수평가=10%이다.

농구대잔치 출전

20일 한양대와 첫경기

농구부(감독=최성오)가 오는 20일부터 9일간 '2003 농구 대잔치' 예선에 출전한다.

총 11개팀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서 본교는 △단국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와 A조에 편성됐으며 오는 20일 오후 2시 한양대와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첫 경기를 갖는다.

예선은 조별리그로 치러지며 본선은 6강 토너먼트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최성오 감독은 "지난 전국체전 준우승에 이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리수

한국사회에서는 나이를 기준으로 위계질서를 세우는 경우가 많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면 먼저 나이를 묻고 뒷사람인지 앞사람인지를 정한 후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다. 물론 나이가 많다면 '당연히' 선배이고 그에 합당한 대접을 원하기도 한다.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하지만 미국사회에서 나이를 묻는 것은 대단한 실수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향하는 수평적 사회구조 속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어떤 외형적인 조건에

의해 자신이나 자신의 능력이 평가되는 것을 꺼린다. 나이가 많고 적음이 상대적 기준은 될 수 있을지언정 한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 당시에도 코살라국의 국왕이 부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친견하기 위해 정사로 찾아왔다. 하지만 부처님이 젊은 분인 것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부처님은 29세에 출가하여 35세에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왕이 부처님을 만날 당시 부처님은 36세나 37세 정도였다. 왕의 꺼림칙

하면서 의심스러운 표정을 본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대왕이시여, 이 세상에는 어리다고 해서 업신여겨서는 안되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무사를 닮다고 해서 업신여겨서는 안되고, 뱀을 작다고 해서 경멸해서는 안되며, 불을 작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수행자도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업신여겨서는 안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대왕은 자신의 경솔함을 깨닫고 불제자가 되었다고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나이라는 제약

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폐단을 치유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자신의 실수를 모면하기 위해 나이로 위계질서를 세운 경향이 있을 것이다. 자신의 실수나 무능함을 나이라는 수단을 동원해 해결한 일은 없는지 반성해 보자. 진정한 '선배'이자 '어른'은 단지 나이만 많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풍부한 경험과 지혜, 그리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만 그에 맞는 대접과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김소운
불교문화연구원

동대신문 기획광고



권리 찾기의 열쇠, 투표 하셨습니다까?

오는 18일(화), 19일, 20일은 우리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일입니다. 자신의 권익을 생각한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십시오. 잠깐의 시간이 내년을 다르게 할 것입니다.

발전기금 060-700-0119

동대신문사

지면안내

8면 화폐로 문화 읽기



화폐에는 사용하는 나라의 사회·문화적인 특성이 담겨있다. 이에 화폐 도안의 특징과 최근 등장한 이색 화폐 등을 살펴본다.

2면 기획③ 학생회 예산의 투명성

학생회비, 졸업앨범비 등의 운용에 대해 살펴보고, 투명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4면 유시민 의원 인터뷰

'동대인이 만나고 싶은 이 시대 논쟁'으로 선정된 유시민 의원을 만났다.

동국발전은 교육의 질 향상부터

1. 물적 환경
2. 교과과정 I
3. 교과과정 II
4. 교수임용 및 처우 I
5. 교수임용 및 처우 II
6. 간담회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 이뤄져야”

최근 본교는 건학 100주년을 기점으로 한 제도 약 의지가 매우 높다. 이에 지난 14일 본사 회의실에서 이영환(경제학) 기획인사처장, 조원생 학사지원실장, 이종욱(정보관리학) 교수회 총무, 유영빈(경영4) 총학생회장과 함께 대학발전의 중심이 되는 ‘교육의 질 향상’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공간활용도 높여야

사회자=교육환경은 ‘교육의 질 향상’의 기본이다. 현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은. 유영빈(이하 유)=구 중앙도서관 리모델링으로 인해 생긴 공간에 대해 여러 단과대가 요구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공간부족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 이종욱(이하 종)=공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학내 3주체가 열악한 환경에 대해 인식하고 서로 양보해 가장 시급한 공간부터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조원생(이하 조)=동의하다. 현재 강의실 활용률이 약 80%인데도 평균 ‘강의 당 학생 수’는 50여명이다. 모든 구성원들이 절대적인 공간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특정공간을 줄이기 위해 학생회실, 학회실 등을 공용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유=야간강좌 학생들이 주간으로 전환되면서 주간수업이 늘어나고 90년대 초반부터 정원이 2천여명 가량 늘어난 것도 공간 부족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정원을 감축하는 것도 공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일 것이다.

이영환(이하 영)=정원감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공간 이용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 현재 학교 측에서는 겨울 방학 동안 전체공간 활용현황과 각 단위별 점유율 등을 조사해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공간재배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

또한 문화관 지하 그림식당 공간을 줄이고 창업보육센터는 계약이 끝나는 2009년 즈음부터 업체를 외부로 이전해, 남은 공간에 교

육공간을 만들 예정이다.

그러나 제3캠퍼스 건립은 당분간 힘들다.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인 만큼 지금 같이 학교사정이 좋지 않을 때에는 건립이 불가능하다. 유=일산 캠퍼스건립과 관련한 학내주체들의 의견수렴과정이 부족하다. 지금까지 총학생회는 이와 관련해 학교 측의 어떤 입장도 듣지 못했다.

또한 현재 제3캠퍼스부지가 교육용 부지로 등록돼 있지만 착공하지 않을 경우 교육용 부지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영=현재까지는 특정 단과대 이전 등 제3캠퍼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내년까지만 교육용 부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부지의 향후 용도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고 그 과정을 공개할 것이다.

전공 강화 이뤄져야

사회자=전공부실화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 보는가.

유=학부제로 변경되면서 기초수업을 교양 과목으로 전환해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 수가 많아지고, 수업내용의 심층성이 떨어지는 것이 전공부실화를 초래한 이유 중 하나다.

종=제도가 전공부실을 가져 왔다기보다 교수의 수업방식과 이에 대한 학교의 지원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한 경쟁을 통한 발전이 중요하다. 그러나 학과제도의 전환은 오히려 교수간 경쟁을 떨어뜨려 전공 부실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전공필수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전에는 전공필수가 남용되면서 수강생이 이미 확보돼 교수가 안일해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지만 단점을 최대한 줄여 새롭게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조=유사학문이 아닌, 관계없는 학과들을 획일적으로 학부제

이제 9백 여일 후면 건학 1백주년을 맞는다. 때문에 ‘동국발전’을 위한 구성원들의 논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대학발전의 근본은 무엇보다 교육·연구분야일 것이다. 이에 본사는 총 6회에 걸쳐 본교의 교육·연구역량을 살펴보고 발전방향을 제시해 본다.

편집자



이영환 기획인사처장

이종욱 교수회 총무

조원생 학사지원실장

유영빈 총학생회장

의 틀 안에 묶어 둔 것이 학부제 부작용의 원인이다. 일부 단과대가 2004학년도부터 학과제로 전환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각 단과대가 특성에 맞는 학사제도를 찾아가고 있다. 전공교육의 강화는 학과에서 앞장서서 진행해야 하며 전공필수 역시 현재 학교 측에서 학과별 자율에 맡기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교수처우 개선 시급

사회자=본교는 연구환경 등 교수에 대한 처우가 미흡한 실정이다. 교수처우·임용의 문제점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종=교수들이 타 대학으로 옮겨가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본교는 교수에 대한 처우가 매우 열악한 현실이다. 일부 초임 교수들은 채용 후 수년 동안 한계 연구실을 2인의 교수가 공동으로, 수업내용이 심층성이 떨어지는 등 교수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외부의 우수한 교수들의 지원도 줄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먼저 연구실 등 기본적인 환경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영=본교의 교원확보율을 교육부 기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서울·경주 양 캠퍼스를 합쳐 3백여 명을 충원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120여여명의 자금이 필요하며 자금이 마련된다고 해도 지금은 지원자가 부족한 형편이다. 먼저 지원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수 처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수를 채용해야 함에도 재단에서 정한 ‘학과 교수 채용인원한도’ 때문에 뽑지 못하고 있는 학과가 22개나 된다. 앞으로 이를 상향시키는 조정도 지속적으로 하겠다. 우수 교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특별채용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우선 다음 학기 4명 정도의 교수를 특별채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이 같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확보와 임용과정의 공정성 확립이 시급할 것이다. 현재는 학생 공개강의평가 등등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임용과정에 대한 외부 압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종=본교는 타 사립대학에 비해 압력은 거의 없다. 교수 추천에 대한 권한이 학교 측보다는 각 학과 교수들에게 많은 만큼 교수들이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4년 마다 시행되는 교수 인성평가는 중간결과를 공개한다면 평가에 대한 교수들의 부담이 줄어들어 연구에 전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성원간 화합 필요

사회자=건학 백주년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본교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영=대학의 기본정신인 ‘합리성’을 되찾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동국의 재도약은 분명히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다.

종=본교가 대학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등 위기를 맞은 이유는 구성원들이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안주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구성원들의 인식변화와 화합이 필요할 때이다.

조=100주년 기념관을 만들었던 하는 바람이다. 본교와 같이 개교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 고려대는 100주년 기념관을 짓고 있다. 본교 역시 예술적인 기념관 하나 정도는 건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학교 측이 구성원들의 합의 없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화합은 불가능하다. 학교 측은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용해 가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과정’의 변화다.

사회=조슬기 기자
정리=최우석 기자

사설

당신도 선거를 만드는 주체다

11월 18일, 동학인이려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 날’이 다가왔다.

내일부터 3일간 계속되는 ‘그 날’은 다름 아닌, 2003년 학생회 선거가 진행되는 ‘투표하는 날’.

학생회 선거를 강조하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결전의 날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 분위기는 무르익지는커녕, 오히려 ‘적색 신호’가 깜빡거리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단과대에서 후보가 나오지 않은 올해의 분위기는 유난히 심하다. 후보가 없는 단과대에서는 총학생회 선거가 진행되는 지조차 모르는 학생들이 더 많아 보이게 한다. 상황이 이러한데, 후보자들이 학생들의 ‘무관심의 벽’까지 넘을 수 있을지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투표율 50%의 전쟁’이 단지 기우만은 아닌 셈이다.

때문에 올해 선거에서 분위기를 조성할 위한 적극적 홍보 방법이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 방안이 미흡한 것은 특히 아쉬운 대목이다.

대학 선거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투표제를 도입한 승명여대의 경우는 그런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지난해 투표를 마달로 선거가 무산됐던 본교처럼 속대 역시 3년째 재선거를 해야 했지만 전자투표를 실시한 올해는 성공적으로 선거를 치러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선거를 의면해도 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선거는 후보자와 유권자인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갈 때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다. 또한 거듭 강조해 왔듯이, 투표는 학생회와 학생들이 ‘소통’하고 서로 신뢰를 주고받는 첫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투표하지 않고서 학생들의 복지와 이익에 대해 학생회가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신뢰를 보여주지만 바라는 일반적인 요구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가 투표해야 할 이유는 분명해진다. 동국 구성원으로서 스스로의 실질적인 권리를 누리고자 한다면, 비겁한 기권 대신 당당한 ‘한 표’를 행사하자.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홍기삼
편집인 겸 주간: 이상영
부주: 김구분
편집장: 류변철
편집장: 윤보라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구독문의: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58 팩스 (054)770-2057



학생자치회 회의 모습

www.dongguk.edu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4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일반대학원 ☎ 2260-3094 ~ 5, 3116

■ 모집학과 (※표기 학과는 관공립대학에 개설된 학과임)

계열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인문사회	불교, 선, 인도철, 국어국문, 영어영문, 독어독문, 일어일본, *인문, 중어중문, 시, 미술사, 철, 윤리, 교육, 유아교육, 한, 병학, 경영학, 사회, 특산, 국학, 전통문화, 경제, 경영, 무역, 환경, 정보관리, 관광, *문화경영, 식품자원경제, 지리	불교, 선, 인도철, 국어국문, 영어영문, 독어독문, 일어일본, *인문, 중어중문, 시, 미술사, 철, 윤리, 교육, 유아교육, 한, 병학, 경영학, 사회, 특산, 국학, 전통문화, 경제, 경영, 무역, 환경, 정보관리, 관광, *문화경영, 식품자원경제, 지리
자연계	수, 물리, 회, 통계, 반도체공학, 수학교육, 농, 임, 생생, *초경, 가전, *간호, *생물공학	수, 물리, 회, 통계, 반도체공학, 수학교육, 농, 임, 생생, *초경, 가전, *간호, *생물공학
공학계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전기공학, 토목환경공학, 건축공학, 화학공학, 식품공학, 신소재공학, *전자계산, 기계공학, *인공지능, 정보통신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전기공학, 토목환경공학, 건축공학, 화학공학, 식품공학, 신소재공학, *전자계산, 기계공학, *인공지능, 정보통신공학
예체능계	연극영화, 미술, 체육	연극영화, 체육
의약계	*한의, *의	*한의, *의
학과간	멀티미디어 (연극영화,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경영학) *전자정보공학 (경영, 국제통상, 정보통신)	-

■ 국가지원 대형 연구 프로젝트 사업 및 관련 학과

분야	지원기간	사업명(팀) 및 연구선도	신청(연구)학과	특점
인문사회	교육인적자원부	불교문화사상사 교육연구단	불교학과	장·단기 해외연수 및 학과별 산발발자를 거쳐 장학금 지급
	학술진흥재단	한국어·외국어 100년 연구팀	유언문화학과	
	학술진흥재단	조선왕조실록 연구팀	신학과	참여 대학원생에게 매월 연구비 지급
	학술진흥재단	연말목 노경숙씨 연구팀	국문학과	
자연계	과학기술부	양자능력반도체 연구선도(SRC)	물리, 반도체학과	참여 대학원생에게 소정의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
	과학기술부	멀티미디어신기술 연구선도(ERC)	전자공학과	
	산업자원부	산업용 공정보호장비 표준화팀	기계공학과	
공학계	산업자원부	생체조직공학기술 연구팀	화학공학과	참여 대학원생에게 매월 연구비 지급
	중소기업청	신원전 공중기술개발사업	공과대학, 정보시스템대학	
의약계	과학기술부	국가차등연구실(NRL)	한의학과	

※ 기타 교육부(한국학술진흥재단), 과학기술부(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부연구비, 산업자원부 등의 국가지원 연구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하고 있으며 참여 대학원생에게는 매월 연구비 지급.

■ 원서교부 및 접수: 2003. 11. 3(월) ~ 11. 14(금), 교과부 및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전형일시 및 장소: 2003. 11. 22(토) 10:00부터, 본대학원

영산정보통신대학원(주간) ☎ 2260-3762 ~ 3

■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 모집학과: 영산영상제작학과·영산회화, 영산연출, 시나리오, 촬영, 프로그래밍(디자인, 사운드디자인, 특수효과연출) / 멀티미디어학과·멀티미디어공학, 컴퓨터음악, 멀티미디어디자인, 게임제작 / 네트워크관리학과·네트워크관리학

■ 원서교부 및 접수: 2003. 11. 5(수) ~ 11.14(금), 교과부 및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전형일시 및 장소: 2003. 11. 19(수) ~ 11. 21(금) 10:00, 본대학원
■ OPEN LAB 실시! 11월 7일 10 ~ 17시 교수상담실(인하부) 가능 마이아파트(본래는)는 해당 방문가능

불교대학원(야간) ☎ 2260-3097 ~ 8

■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지도자과정

■ 모집학과: 불교학과·불교학, 선학 / 불교사학과·불교사학 / 불교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 경제문화학과·경제문화학

■ 원서교부 및 접수: 2003. 11. 3(월) ~ 11.17(일), 17:00까지
■ 전형일시 및 장소: 2003. 11. 20(수) 13:00, 본대학원 (지도자과정 전형일시: 2003. 11. 20(수), 14:00)

행정대학원(야간) 신입생·편입생 ☎ 2260-3102 ~ 3

■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최고경영자과정

■ 모집학과: 행정학과·행정학, 정책학, 지방자치 / 인보행정학과·외교공관, 방위산업, 군사전략, 인보정책 / 공인행정학과·경찰행정, 소방행정, 교통행정, 사법행정, 민간경제 / 복지행정학과·사회복지 / 북한학과·북한경제, 북한사학, 통일정책

■ 원서교부 및 접수: 2003. 11. 10(월) ~ 11. 20(목) 10:00 ~ 17:00
■ 전형일시 및 장소: 2003. 11. 22(토) 14:00, 본대학원

경영대학원(야간) ☎ 2260-3106 ~ 7

■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최고경영자과정, 이비트·한반선전문기자과정 특별과정

■ 모집학과: 경영학과·조직·인사관리, 마케팅, 재무·증권금융, 국제경영전공 / 무역학과·인턴넷무역전공 / 회계학과·회계학, 세부회계전공 / 경영정보학과·경영정보, 국방관리(총상대) 전공 / 부동산학과·부동산전공 / 호텔관광경영학과·호텔관광경영, 이벤트경영전공

■ 원서교부 및 접수: 2003. 11. 17(월) ~ 11. 27(목), 본대학원
■ 전형일시 및 장소: 2003. 11. 29(토) 14:00, 동국대 학술관

교육대학원(야간) ☎ 2260-3110 ~ 11

■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교육경영 최고위 관리과정

■ 모집학과: *교육정책, 상담심리, *유아교육 / 교육학과·교육정책, 상담심리, *유아교육 / 교과교육학과·철학, 윤리, 종교, *역사, 지리, *국어, *영어, 초등영어, 중국어, 일어, 한문, *수학, 물리, 생생, 가전, 컴퓨터, 미술, 체육

■ 원서교부 및 접수: 2003. 11. 17(월) ~ 11. 21(금) 10:00 ~ 17:00
■ 전형일시 및 장소: 2003. 11. 29(토) 14:00, 본대학원 (경주캠퍼스 지원자는 사회과학대학원(054-770-2199)에서 전화)

인문정보대학원(야간) 신입생·편입생 ☎ 2260-3722 ~ 3

■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최고경영자과정

■ 모집학과: 신문방송, 정보관리, 광고홍보, 출판편집

■ 원서교부 및 접수: 2003. 11. 6(목) ~ 11. 19(수) 17:00까지
■ 전형일시 및 장소: 2003. 11. 22(토) 14:00, 인문정보대학원 원강실

산업기술경영대학원(야간) 신입생·편입생 ☎ 2260-3602 ~ 3

■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최고경영자과정

■ 모집전공: 건축공학, 토목공학, 환경공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기계공학(메카트로닉스), 전기공학, 전자공학, 다자민공학, 산업공학(경영공학), 식품공학, 화학공학(생명·신소재), 생명·화학산업(응용화학)

■ 원서교부 및 접수: 2003. 11. 14(금) ~ 11. 27(목), 산업기술경영대학원 교과부
■ 전형일시 및 장소: 2003. 11. 29(토) 14:00, 산업기술경영대학원 원강실

문화예술대학원(야간) 신입생·편입생 ☎ 2260-3606 ~ 7

■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연구과정, 지도자과정

국제정보대학원(야간) ☎ 2260-3731 ~ 3

■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연구과정

■ 모집학과: 정보보호학과, 영어통·번역학과, IT·Business학과

■ 원서교부 및 접수: 2003. 11. 3(월) ~ 11.14(금), 17:00까지
■ 전형일시 및 장소: 2003. 11. 21(토) 18:00, 본대학원

불교문화대학원(주간·야간) ☎ 054-770-2394 ~ 5

■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지도자과정(불교, 문화예술, 경제문화, 불교상담지도자과정)

■ 모집학과: 불교학과·불교학, 선학 불교예술학과·국악, 불교미술 인간학과·경제문화, 불교상담

■ 원서교부 및 접수: 2003. 11. 10(월) ~ 11. 20(목), 17:00까지
■ 전형일시 및 장소: 2003. 11. 22(토) 14:00, 본대학원

사회과학대학원(주간·야간) ☎ 054-770-2093 ~ 4

■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최고경영자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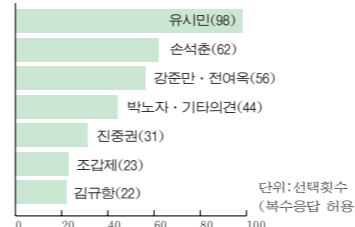
■ 모집학과: 행정학과·정책개발, 지방자치, 경영학과·경영, 전자상거래, 세무관리, 무역실무 국제관계학과·국제관계 / 법학과·법학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 / 사회체육학과·사회체육

■ 원서교부 및 접수: 2003. 11. 24(월) ~ 12. 5(금), 17:00까지
■ 전형일시 및 장소: 2003. 12. 6(토) 14:00, 본대학원(전공별 1층)

동대인이 만나고 싶은 이 시대 논쟁가

①유시민

지난 7일 본사는 본교생 300명(전체의 2.3%)을 대상으로 '동대인이 만나고 싶은 논쟁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시대 논쟁가'는 다양한 화두를 던져 논쟁이 광범위하게 일게끔 만드는 이를 의미한다. 설문결과 열린 우리당 유시민 의원과 한겨레 신문 손석춘 논설위원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이에 유시민 의원을 만나 보았다. 편집자



“논쟁 이끌어 내려면 도발적 행동 필요하죠”

대학사회현안에 대한 그의 생각을 살펴본다.

정당개혁이 나의 '임무'

-정치개혁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정당이 부패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동안 정치지도자는 당원과 유권자에게 무언가를 나눠줘야 했다. 그래서 자꾸 불법자금을 받았던 것이다. 이제는 유권자와 당원이 정치지도자들을 투명하게 후원하는 식으로 뒤집어야 한다. 그러면 후원회 해도 되지 않겠나. (유시민원은 다른 의원들과 달리 후원회를 계속 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 '노무현대통령의 비공식 대변인'이라는 별칭이 있는데, 부담스럽지는 않나.

=농담 삼아 하는 말인데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노 대통령이 못하는 부분은 남들이 많이 말하니까, (나라도) 잘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된 후 지금까지 펼친 의정활동은.

=시행령으로 준비중인 '건강보험 본인분담금 상한제'는 연간 1인당 300만원이 넘는 진료비용을 정부가 부담해 질병 때문에 가정이 몰락하는 것을 막자는 내용이다.

그리고 '장애인 이동권'에 주목하고 있다.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신체를 이동시키지 못하는 것은 헌법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여기에 국민연금 제도 개선까지 더해, 세 가지 복지 현안을 놓고 열심히 했는데 생각만큼 잘 안 되더라.(웃음)

-노동문제와 이라크 파병문제 등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맞는 말이다. 하지만 나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 이를테면 (지금으로서는) 정당 개혁에만 집중한다.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지 않는 일이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이라크 파병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사실을 이미 밝혔다. 역량이 부족해 활발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게 죄송하다.

다만 손배 가압류제도는 남용되지 못하도록, 비정규직 제도는 계약기간 외에는 정규직 노동자와 다른 것이 없게끔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는 정부가 기업, 국회와 협력해야만 풀 수 있는 사안이다.

대학의 '공정한 경쟁'을

-고학력 청년실업에 대한 생각은.

=해법을 쉽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교과서적인 답이 있긴 하다. 먼저 산업이 요구하리라고 예상되는 사람이 많이 나오도록

육과 산업을 매치(match) 시키는 방법이 있다. 산학협동이나 교육·노동부 통합 등이 그 예다. 단기적으로 처방하려면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하는데, 정부가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가 문제다.

-대학생의 실업문제는 '대학 서열화' 문제와 맞닿아 있는데.

=서열화 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경쟁이 불공평하다는 데 있다. '이웃웃(결과)'으로 서열이 매겨지면 (그 대학의 교육 능력이 반영되므로) 괜찮은데, 지금은 신입생이 우수한 대학이 1등 대학이지 않은가.

차라리 서열대의 학부를 없애거나 개방대학으로 만들어 국공립대 학생들이 원할 때 가서 공부하고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사회에서 논쟁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안이 있다면.

=교수생활을 해 보니 학생들이 의외로 질문을 안 하더라. 그러면 '우리는 왜 질문하지 않을까, 왜 논쟁하지 않을까'에 대해 토론을 해보면 어떨까. 논쟁은 누군가의 도발적인 문제제기가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을 때 이루어진다. 예컨대 '대학당국은 돈을 어디에 쓰는 거야' '교수 중에 30%는 물같이 해야 돼'라고 도발적으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송윤경 기자 itsj@dongguk.edu



본사 사진자료

지식을 알기 쉽게 전하는 '지식 소매상' 혹은 빠른 불온한 '자유주의자'. 국회의원 직함을 달기 전까지 유시민 의원은 자신을 이렇게 부르곤 했다. 하지만 그를 선택한 많은 설문응답자들은 이제 그를 이 시대의 '새로운 정치인'이라고 표현했다. 사실 논쟁을 발화시키는 그의 '도발적인' 행보는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파격적인 정당창당과 운영, 캐주얼 복장의 국회 첫 출근, 면책특권에 대한 문제제기 등 그가 크고 작은 '정치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만난 유 의원은 정당개혁에 대해 자신이 "완수해야 할 임무"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각각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전제를 자주 달아, '생각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자적인 면모를 보여주시기도 했다. 정치현안과

정치외교학과 제15회 모의국회

파병 둘러싼 현실 '삼별초 항쟁' 과 닮았네



(위원장=임재균·정외3)가 주최한 이번 모의국회는 '미국의 패권주의와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제15회 '대동민국 모의국회'가 지난 12일 오후 6시 중강당에서 열렸다.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을 주축으로 한 모의국회 준비위원회 '전쟁, 파병, 그리고 패권주의'를 주제로 진행된 1막에서는 이라크 파병을 둘러싼 우리사회의 찬·반 논리를 진다했다. 대동민국이라는 가상국가의 국제전략회의에서 군인, 경제 연합 대표, 국회의원으로서 구성된 보수진영은 "미국의 보호 없이는 우리나라의 안보를 보장 받을 수 없다"며 이라크 파병에 찬성했다. 그러나 교수, 시민단체 대표, 국회의원으로서 구성된 진보진영은 "명분 없는 전쟁을 위해 수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희생시킬 수 없다"며 파병을 반대했다. '역사속의 패권주의-삼별초의 항쟁'을 주제로 진행된 2막은 고려시대의 삼별초 항쟁을 사극으로 재연해 이라크 파병을 둘러싼 현실에 빗댔다.

고려에 권력을 행사하는 원나라는 미국, 힘이 없어 당하기만 하는 고려는 한국, 자주성을 가지고 원나라에 대응하는 삼별초는 이복을 상징한다. 이같이 역사적 사실에 빗댄 풍자는 많은 관람객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3막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우리의 대응'에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결국 '파병반대'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파병 찬성론자들이 '파병을 해서 국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 미국에 대응하는 방법'이라는 모순된 주장을 펼치자 이에 파병을 반대하는 의견에 힘이 실리게 되고 '대동민국 모의국회'는 '파병을 거부하고 미국의 패권주의에 반대한다'는 국무총리의 성명서 발표로 마무리 된다.

이라크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 파병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모의국회와 같이 대학생들이 현실정치 해법을 함께 고민하는 노력이 계속돼야 할 것이다.

김지희 기자 gazzababo@dongguk.edu

동약론

책임 미완성

동약에 또다시 선거기간이 다가왔다. 올해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학생회 임원들의 사퇴세가 학내 곳곳에 보인다. 이들의 사퇴는 크게 직접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사퇴와 선거운동을 돕기 위한 사퇴로 두 가지다. 이중 선거출마를 위한 사퇴는 부득이하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한 사퇴까지 '당연한 것'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대표적으로 총학생회는 학원자주화투쟁위원장이 총학생회 출마자 선거운동본부 정책국장을 맡으면서 사퇴했으며 연사국장역시 사퇴했다. 회장, 부회장을 제외하면 8명에 불과한 총학생회 집행부의 4분의 1이 사퇴한 것이다. 몇몇 단과대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음해 학생회 '건설'이 현재로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학생회는 선거 때가 다가오기 시작하면 입기가 끝나간다는 생각에 활동에 열중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입기의 6분의 1이나 되는 기간이다. 그동안 학생회는 학원자주화 사업의 경우 연 초에만 중심적으로 활동을 펼친다는 비판을 받지 않았던가. 어쩌면 연 말에는 특별한 활동이 없다고 바라보는 인식자체가 안이한 것인지도 모른다. 즉 이들의 사퇴로 이후 학생회 사업이 더욱 소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학생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매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이같은 학생회 간부 사퇴의 근본 원인은 '사람 부족'이다. 선거운동을 도울 인원이 충분하다면 탈퇴한 집행부들 역시 자신의 입기를 중간에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회 집행부 입기는 선거 끝날 때까지 아닌 12월 31일까지이며 그 때까지 학생들이 생각하는 '우리' 학생회는 2003학년도 학생회이다. 선거 성사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맡은 직분을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도 중요하지 않을까.

최우석 기자 kauri21@dongguk.edu

이주의 시사키워드 - 특별검사제도

왜 '특별한 검사' 일까

지난 14일 국회가 '대통령 측근 비리이후 특검법'을 통과시키면서 특별검사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별검사제도(이하 특검제)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와 같이 검찰이 상부의 압력 때문에 엄정한 수사를 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별도의 '특별검사'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의 특검제는 미국에서 따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73년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닉슨 대통령이 자신의 도청의혹을 향한 검찰수사를 덮으려고 하자, 반대여론이 높아지면서 '독립검사제' 관련법이 제정됐다.

이후 99년 클린턴 대통령의 트윈스키 성추행 혐의를 밝혀낸 것도 특별검사였지만, 같은 해 '특검도 결국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폐지됐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특검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사건은 99년 옷 로비 사건,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이영호 게이트 사건, 대북 송금 의혹사건 등 네 가지 정도다.

사회부 society@dongguk.edu

소나기

학생식당,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간을 잘 맞았으면 좋겠다.
 △가격은 부담없어요. 깨끗한 식판으로.
 △메뉴가 다양해요 조금만 더 다양하게
 반찬도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
 △라뷰이에 넣는 깻잎 물로 한번 씻어서
 넣어주세요. 씻지도 않고 가위로 툼툼툼
 잘라 넣는 것 다 봤습니다.
 △국자로 맛 보지 마요.
 △여자도 밥 많이 주세요. 배고파요.
 △더이상 DNA(머리카락) 먹기 싫다!
 △제발 술안주에 밥 먹으라고 하지 않았음
 좋겠다.
 △밥 더 달라고 해도 표정 변하지 말고
 많이 주세요.
 △세정실에서 아르바이트 해 보았는데 점심
 공짜로 먹으면서도 기분이 좋지 않았다.
 새 것으로 교체 좀 해요.
 세정실 아르바이트 생도 더 쓰고요.
 △총장님이 일주일에 한번 학생식당에서
 식사해야 한다.
 △학교가 재정지원 해서 밥, 반찬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
 △상복원 식수대 중 절반이 망가져 있다.
 5월부터 식당 관계자들은 아무도 2층 식당에서
 물을 먹어본 적이 없단 말인가.
 △중국관 식당이 가장 심각하다.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식단, 영양가 있는
 식단, 먹음직스러운 식단.
 △차별적인 식단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1500원짜리 밥과 2500원짜리 밥을
 따로 만드는 것이다.
 돈이 없는 학생들은 1500원짜리 밥을 먹을
 것이고 좋은 밥을 먹고 싶은 학생은
 2500원짜리를 먹으면 된다.
 △그런식으로 이원화 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가격과 메뉴의 이원화는 합법적인 가격상승을
 초래한다.
 △일요일에도 학생식당에서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지난 10월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안전을 문서로 보장할 수 있다며 6자 회담을 다시 갖자고 한 데 대해, 북한이 "우리와 공존하려는 의도에서, 동시 행동 원칙에 기초한 일괄타결안을 실현하는 데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라면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대응함으로써, 제2차 6자회담이 12월 중순께 열릴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북경제 보장이나 경제지원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그리고 북한은 '미국이 먼저 불가침조약을 체결해야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각각 한 발씩 물러서는 모양이어서 긍정적 전망을 갖게 하는 듯하다. 그러나 낙관적 전망을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먼저 11월 들어 미국 주도로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가 북한 경수로건설 중지를 결정함으로써 우호적인 협상 분위기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미국이 지난해 중유제품을 중단한 데 이어 경수로건설까지 중지한 것은 북한에 압박을 가하며 협상의 주도권을 가지려는 의도일지 모르지만 북한의 반발이 매우 클 것 같다.

북한은 이미 미국에게 "경수로 건설을 의식적으로 지연시키고 전면 중지함으로써 우리에게 입



논단

이재봉
원광대 정치학과 교수

6자회담 중재역할 제대로

헌 엄청난 전력 손실에 대하여 마지막 환론까지 보상할 의무가 있다"며 "위약금을 지불할 때까지 이미 들어온 경수로 건설장비, 자재와 기술문건의 반출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북한은 이번에도 "모든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의 주대상자인 미국과만 결산하게 되어 있다"며 다자 회담의 틀 속에서도 북미 양자대화 에 초점을 맞추지만, 미국은 이에 여전히 부정적

이다.

북한은 미국이 94년에 체결된 제네바합의를 먼저 위반하면서 북한을 핵무기로 선제 공격하겠다는 위협을 끊임없이 해왔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보장만 해주면 핵개발 문제는 풀릴 수 있으니 다른 나라 필 필요 없이 양국이 협상을 벌이면 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국제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남북한과 주변 강대국이 함

께 모여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대응해온 것이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금 이라크에서 엄청난 곤경에 빠진 터에 북한과도 끊임없는 갈등과 긴장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점에서, 북한의 요구를 끝내 거부하지 못하리라는 생각이 든다.

현 국무부차관인 리처드 아미티지와 국방부차관인 폴 윌포워츠가 중심이 되어 99년에 작성한 전략 보고서의 내용대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 6자 회담을 추진하여 궁극적으로는 북한과 국교를 정상화해 나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듯 북한의 핵개발 문제는 일차적으로 북미 사이에 풀어야겠지만,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협정 문제까지 협상하기 위해서는 핵심 당사자인 남한이 빠질 수 없다.

이 과정에서 남한은 미국을 맹종하면서 북한을 압박할 게 아니라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 미국에게는 불가침조약이나 평화협정을 맺고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북한에게는 핵무기를 포기하고 휴전선 근처의 병력을 점진적으로 감축하도록 설득하는 일이 그것이다.

다시 듣고 싶은 명망의 -'유기화합물의 결합 및 구조' 김홍범(화학) 교수

지난 9월 본교 교육연구원에서 실시한 '좋은 강의' 원고 모집에 선정된 여섯 편의 글을 차례로 읽는다. 편집자

모형·도구 이용해 중요개념 '쑥쑥'

이 수업은 유기화학을 배우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강좌 명 그대로 유기화합물의 결합과 구조, 그리고 기본적인 반응 메커니즘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먼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독특한 방법으로 강의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교수님께서 분자모형을 가지고 오셔서 직접 만들어 보여주셨다. 반응을 설명하기 위해 노트북과 빔 프로젝터로 화합물의 구조를 구현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각 화합물의 성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가지 도구를 동원하셨다.

교과서를 보는 방법도 요약된 부분을 먼저 보고 나서 중요한 개념과 용어들을 익히게 하셨다. 숲을 먼저 보고 나서 나무를 하나하나씩 본 것이다.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해서 자연과학 원리를 보는 요령을 알게 되었다.

평가방식은 세 번의 시험과 퀴즈의 점수를 합산해서 석차를 낸다. 시험지는 매번 채점해주시고 난 뒤에 돌려주신다. 채점 시 학생 자신도 모르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신 것이다.

그리고 지난 수업시간의 핵심 내용을 게시판에 붙여줌으로써 학생들에게 필기하느라 수업내용을 집중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신다.

또한 수업 중에 질문을 자주 하시는 편이다. 교수가 학생에게 던지는 질문은 지식의 전달과정에 대한 피드백작용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학생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계시면서 친근하게 불러주셨던 것 또한 인상 깊었다.

교육자로서 김 교수님은 유교적 의미의 스승과 제자라는 고정관념을 허물고 지식의 전달자로서 친근한 스승이 되도록 노력하셨다고 생각한다.

양형동 (이과대 생물2)

격렬시위 누구를 향한 분노인가

여기저기 타오르는 화염,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고함을 지르는 사람들, 이는 서로 손발을 맞춰가며 찍는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다.

지난 9일 저녁 서울 한복판에서 격렬 시위를 벌였던 1만 여명의 노동자들과 경찰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노동자들의 분노가 화염병이 되어 날아들었고, 이에 맞서 전·의경들이 무거운 방패를 앞세워 진압에 힘썼다.

정부는 다음날 긴급회의를 통해 화염병 시위자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민주노총 지도부에서는 손배 가압류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그 원인이라며 정면대응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격렬한 시위의 진자 피해자는 과연 누구인가. 팽팽

히 맞서고 있는 정부와 민주노총 지도부인가. 아니다. 시위의 최전방에서 피망 흘리며 맞선 노동자들과 전·의경들이다.

전경과 의경은 국방의 의무로 대민 봉사와 사회질서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이다.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인 것이다. 그런데 화염병과 쇠파이프가 난무하는 격렬한 시위 속에서 만약 죽기라도 한다면, 이라크에 파병돼 죽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더욱이 웃지 못할 것은 이번 시위에 '새총'이 등장했다. 경찰이 '잠세'여서 새총을 준비했는가. 너트를 넣고 발사하는 새총에 잘못하면 실명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방패 뒤의 얼굴들을 되새겨 보고 지금 쏘아 올리고 있는 분노의 불꽃이 과연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차삼준 (사과대 경영2)

학부제가 무너뜨렸던 풍물패의 부활

"어느 학과세요?"

대학생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다. 하지만 나는 대학생임에도 지난 1년 간 이 질문에 정확히 대답할 수 없었다. 학부제의 많은 폐단 중에 하나, '신입생들의 결속력 약화'의 원인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 생각한다. 다만 학부제의 이런 맹점에도 학부생인 나는 지난 일년 간 일문과에서 학과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일문과에 소모임 하나가 부활했다. 바로 내가 몸담고 있는 풍물패이다. 학부제(모집단위 광역화)가 도입된 지난 2000년에 사라졌다가 올해 다시 활동을 시작해, 지난 8

일 일문과 임박식공연을 거쳐 지금은 매주 금요일 연습을 하고 있다.

풀어졌던 맥을 다시 잇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다. 학과에서 보조금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선배님들이 모아주는 회비로 악기를 새로 구입하고, 잊혀진 가락들을 떠올리기 위해 타 동아리에 부탁해 도움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 땅의 대학생으로서 우리의 가락과 신명을 느끼는 일하기에, 분명 그만큼 가치와 보람이 있다고 생각한다.

무거운 짐이 필지도 모르는 회장의 자리에서 열심히 풍물패를 끌고 나가는 선배, 그리고 함께하는 다른 여러 선배님들, 그리고 풍물을 열심히 배워 나가는 우리 동기들에게 모두 힘내라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이선정 (문과대1)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만화, 또는 사진을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TEL : 2260-3491·2
 FAX : 2279-1270
 문의·재보 : dgupress@dongguk.edu

특특한 <7>

내 사물함!

우리 단과대 실습기자재!

우리 대학 행사들...

2004학년도 새로 배움터

5월, 축제의 한마당~

투표하는 날

결국 나를 위한 거구나!

- 장미에 - substory@hanmail.net

■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

학내문제 해결방안 강구노력 엿보여
 현 교원평가제 예리한 문제지적 긍정적

우선 동대신문이 학내사안에 대해 폭넓은 관심을 갖고 객관성을 지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4회 연속 시리즈로 지면화되고 있는 종합보도면의 '학생회, 이제는 변화해야', 해설보도면의 '동국발전은 교육의 질 향상부터', 사회면의 '사취, 하숙, 고시원생 권리 살펴보기', 그리고 기획면의 학생회 선거에 관한 기사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 기사들은 학교가 거시적인 정책 차원에서 다루지 못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방법을 찾고자 고민한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학생회는 80년대의 운영방식 즉 '학생회=학생운동' 등식의 관계에서 탈피해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해야 하고 나아가 학교와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논의를 기사화한 것은 기사자들의 진솔한 태도를 보여준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삶의 방식 중 하나인 자취·하숙·고시원 생활과 정에서 학생들이 놓치지 쉬운 권리에 현미경을 들이대고,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현 교원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예리한 시각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달하나 천강에' (여론면)에서 제기된 소음문제에 많은 공감을 했다. 또한 같은 여론면의 본교 농구부인터뷰 기사는 (농구부에 대한) 학내구성원들의 무관심을 반성케 하는 좋은 기사라고 생각한다.

한편 '대학원, 본교출신 입학금면제' 보도(종합보도면), 참사람봉사단 소모임 '여개동무' 인터뷰(학내보도면), '철학으로 매트릭스 읽기' 서평(학술면), 학생투고문 '노무현보다 언론이 더 나쁘다', 지원투고문과 '정치논리에 떠밀린 신행정수도건설' (여론면)에 대한 논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동의하기 힘든 관점에서 서술했기 때문이다.

최인숙 (문과대 철학과 교수)

동악광장

축하합니다

△종관이형 생일 축하해. -조운
 △경기도 래원이와 자연이의 900일을 축하합니다. -아구부부장
 △신남 96, 조남신! 여자친구 생겼다며, 부럽다. -승호
 △역교과 영순이 200일 많이 축하해~ -쫄
 △아츨 기쁨이 생일 축하한다. -승호
 △북한학과 26살 2학년 드디어 첫 사랑에 빠졌다!
 △주일이야 생일축하한다. -28기 동기
 △전기과 98 박원서 여자친구 생겼 축하한다. -전기과 일동
 △미영이 임용고사 합격을 미리 축하합니다. -DS

열심히 합시다

△일만이천과 여개동무 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끝까지 파이팅!! -정
 △사회과학대 올곧게 '다울' 공연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멋지게, 힘차게 살아갑시다!

-2기, 딱같이
 △우리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서 부자 되자!! -양경
 △체고 파이팅! 임용대박! 마무리 잘 하시고 모두 합격하세요. -96 손
 △원서야 연애사업 열심히 해!
 △가교 99 전원합격합시다 파이팅!
 -MIR
 △민주야! 시험 잘본 것 축하한다!
 우리 열심히 하자! 사랑한다! 3개 입은 안돼!
 -정현이

수고하셨습니다

△11월 15일 '정보인의 밤'을 끝으로 19대 정보관리학과 학생회의 공식행사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19대 혁신 정보관리학과 학생회 집행부 여러분 1년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계산반 pro2005 민법총칙 끝났네요. 수고하셨습니다!!
 △OPUS 수고 많으셨어요.

-귀염둥이 막내
 △DUSSA 통조인이 밤! 수고하셨습니다!
 -이과대 여학우들
 △윤형석야 수고했다. 네가 자랑스럽구나. -주일
 △통조인의 밤 준비 하느라 수고했다 너석들. -25기 일동
 △선아야~ 힘내라!
 -상록
 △사법대 선거 운동 하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정
 △대정, 태성 열심히 하자. -C.S.H
 △25년간 슬로생활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공과 99 박정욱님.

그리고...

△은정야! 학교에서 너의 모습을 보고 싶어. -현실&효선&민철
 △씨! 이번에도 돈 많이 벌어서 맛있는거 사줘!
 -H.S
 △도열이 오빠! 밥 사주세요!
 -통계학과 H 모양
 △18, 19, 20일은 총학생회 및 단과대 학생회 선거 날이에요! 모두 투표합시다.
 -여개동무

금주의 식단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월 (11/17)	소고기당면탕 (1500) 피자돈가스 (1500) 부대찌개 (1500)	순두부찌개 (1300) 주꾸미제육볶음 (1800) 닭꼬치구이 (1500)	원장찌개 (3000) 참치찌개 (3200) 오징어달걀 (3200)
화 (11/18)	바지락수제비 (1500) 불고기백반 (1800) 산채비빔밥 (1500)	설렁탕 (1500) 모듬육류밥 (1500) 궁중떡볶이 (1500)	원장찌개 (3000) 해물찌개 (3500) 장조림백반 (3200)
수 (11/19)	닭곰탕 (1500) 제육김치달걀 (1500) 양송이햄볶음밥 (1500)	육개장 (1500) 닭조림 (1800) 두부김치 (1500)	원장찌개 (3000) 도가니탕 (3500) 아구찜 (3500)
목 (11/20)	양지탕 (1500) 돈장조림 (1800) 골뱅이소면무침 (1500)	떡만두국 (1500) 탕수육 (1500) 콩나물비빔밥 (1500)	원장찌개 (3000) 콩나물국밥 (3200) 닭갈비 (3200)
금 (11/21)	소고기해장국 (1500) 오징어달걀 (1500) 돈육뽕강장 (1500)	김치탕 (1500) 미트볼카레라이스 (1500) 김비빔김대떡반 (1500)	원장찌개 (3000) 버섯전골 (3200) 코다리무조림 (3200)

■ 금주의 추천메뉴 ■

육개장은 개장국을 꺼리는 사람들이 쇠고기로 개장국처럼 맵게 끓여서 먹는에서 비롯된 음식이다. 진한 뼈 국물에 고추기를 콩나물 등의 각종 재료를 넣어 끓여 푸짐한 건더기와 얼큰한 국물로 입맛 없을때 식욕 돋구는 맛이 일품이다.

안순실 (동국대·상록원식당 영양사)

인문과학부 장원 요약문 - 이승원(철4)

주희(朱熹) 인물성론(人物性論)에 나타난 이기(理氣) 관계에 대하여

주희는 만물을 생성하는 근본적인 두 가지 요소로서 이(理)와 기(氣)를 제시한다. 이는 형이상의 도로서 만물을 낳는 근본이며, 만물의 성(性)이 되는 것이다. 기는 형이하의 것으로서 만물의 형질을 구성하는 것이다. 주희에게서 이(理)를 논하는 것은 곧 태극을 논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희는 "태극은 단지 하나의 이(理)"라고 하였으며, 또한 "태극은 다만 천지 만물의 이(理)일 뿐이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형이상의 도로서의 이(理)는 존재로 하여금 존재할 수 있는 근거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이(理)는 소이연(所以然)과 소당연(所當然)으로 나뉘어 설명할 수 있는데, 소이연은 그러해야 하는 까닭, 즉 사물 존재의 원인을 나타내며, 소당연은 마땅히 해야 하는 법칙, 즉 당위를 말하는 것이다.

기(氣)는 만물을 생성함에 물리적인 근거가 되는 것으로서 형체를 이룬다. 기를 세분하면, 기는 음양이고 질(質)은 오행이다. 그리고 이 질이 있기 때문에 만물이 만들어지나, 음과 양 두 가지가 나뉘어서 이 다섯 가지가 된 것이다. 음양 밖에 별도로 오행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만물은 기로써 형체를 이루고 이(理) 또한 성(性)으로써 부여받는다. 이와 같은 이기의 오묘한 조화에 의해 만물이 생성되는 것이다. 바르고 통한 기를 얻으면 사람이 되며, 이로써 부여 받은 이(理) 또한 온전하지만, 사물은 치우치고 막힌 기를 부여받았으며, 이로 인해 이(理) 또한 완벽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여받은 성은 우주 자연 법칙과 일치하는 보편적 도덕 본성이면서도, 다른 사물에서는 찾을 수 없는 사람만의 특수한 본성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사람이 천하 만물 가운데 가장 고귀한 존재가 되며, 성성론을 형성

이상학적 원리로서 증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는 본성을 온전히 발현시켜 어질고 선한 사람이 있는 반면, 본성이 가려져 제대로 발현시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나 불초한 자 또한 있다. 이처럼 인간이 본성을 발현시킬 때, 온전함과 온전하지 못함에 관여하는 것은 온전한 도덕 본성의 발현 정도에 영향을 주어, 청탁(淸濁)의 차이로 인해 현자도 불초자도 될 수 있는 도덕적·가치론적인 기가 되는 것이다. 더불어 인물성론에서의 기의 편전은 만물의 생성과 함께 이미 고정되지만, 인성론에서의 기의 청탁은 인간의 노력에 따라 변화 가능한 것으로서, 자연스럽게 공부·수행의 문제로 이행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온전하게 발현된 본성은 곧 우주 자연의 법칙과 일치하는 것이 되므로, 천인합일의 가능성 또한 열어 놓을 수 있는 것이다.

정리하면, 주희는 이(理)에는 고정 불변한 보편적인 성격을 부여하고, 기(氣)에는 편전과 청탁의 각기 범주가 다른 두 가지 성격을 부여한다. 그리하여 인간은 우주 만물 중에서 유일하게 온전한 본성을 부여받은 가장 고귀한 존재이면서, 한편으로는 그와 같은 본성을 온전히 발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수양해야 하는 존재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수상소감

대학 4년 마무리하는 뜻깊은 상

논문을 쓰기 시작할 때는 많은 것을 담아내고 싶었다. 하지만 글을 쓰면서, 내 실력으로는 많은 것을 담아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 써보는 논문이기에 글쓰기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이기론·심성론·수양론으로 이어지는 주희 철학의 전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보니, 인물성론과 관련된 주희 철학의 다른 내용들을 담아내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부족한 부분들은 대학원에 가면 많이 보완이 되리라 기대한다.

상을 받는다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일인 것 같지만 이번 동대학술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나에게 남다른 의미가 다가온다. 이번에 제출한 논문은 대학 4년을 마무리하는 글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활을 하면서 함께 했던 많은 분들을 떠올릴 수 있었다. 그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그렇게 그분들에게 고마워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상이기에 더욱 나를 즐겁게 만든다.

이승원(문과대 철4)



왼쪽부터 인문과학부 장원 이승원, 사회과학부 장원 장준환, 사회과학부 기적 이석연(경영4), 인문과학부 기적 전유진(인철3), 자연과학부 기적 이재민(생물4) 군.

심사평

인문과학부

‘읽혀지는’ 용이성에 충족한 논문

어떤 주제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를 체계적으로 적은 글이 논문이라고 할 때, '학술적'이란 연구의 과정이 과학적 방법에 따라 전개되는 것을 의미한다. 논문은 자기의 정보를 남에게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논문은 다른 글과 달리 글로 표현하는 방법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논증적인 서술방법이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주제의 확정, 서술체계, 표현 방법 등이 관용적인 형식에 따라야 하는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인문과학 부문 응모작 모두 '읽혀지는' 논문이라는 점에서 논문의 기본 요건 가운데 하나인 용이성을 충족한다. 논문의 기본 요건은 그 외에도 객관성, 독창성, 정확성, 검증성 등이 있는데, 논문의 일반적 성격 및 이들 기본 요건들을 기준으로 하여, '주희 인물성론에 나타난 이기 관계에 대하여'를 장원으로, '자이나 교도의 식습관으로 본 그들의 교리와 그 비판'을 기적으로 결정했다.

유혼우(문과대 철학과 교수)

사회과학부

문제제기에서 대안마련까지 수준 높은 작품

이번에 동대학술상 사회과학분야에 응모한 논문들은 △이공계 기피현상 △마약·알콜·성문제 △테러문제 △탈북주민문제 △북핵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연구의 주제로 삼고 있다. 모든 논문들이 날카로운 문제제기와 풍부한 사례제시, 그리고 설득력 있는 대안마련에 충실한 수준 높은 작품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북주민들이 남한사회 정착과정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을 정부의 공식통계들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들을 직접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악하고 효과적인 개선방안들을 제시한 충실한 논문이라고 평가됐다. 다만, 설문조사의 질문항목들과 응답방법에 대한 사회조사방법론적 고려가 미진하여 보다 체계적인 분석 결과의 제시가 부족한 점은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곽대경(사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자연과학부

문제 해결하려는 탐구 자세 돋보여

일상의 식탁에 별미와 건강식으로 자주 오르내리는 버섯은 어떤 과정으로 재배가 될까. 수요가 많지 않은 과거에는 산야에 자생하는 것을 채취했으나, 수요가 증가하면서 농가에서 재배의 필요성이 생겼다. 송이, 표고 등 몇몇 품종은 대량생산 재배에 성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일반인에게 생소한 꽃송이 버섯은 아직 인공재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다. 꽃송이 버섯의 재배환경을 분석하여 농장의 비닐하우스에서 재

배가 가능하도록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버섯을 전공하는 생물학도의 몫이라 하였다. 작년에 당선된 학생은 버섯에 대한 다양한 성장조건을 설정하여 자실체(버섯의 먹는 부분)가 가장 잘 자라는 조건을 설정했다. 실험 결과가 실생활에 직접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겠지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학생의 탐구자세가 돋보인 논문이다.

김선정(이과대 생물학과 교수)

사회과학부 장원 요약문 - 정준환(정외4)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민간기관의 역할 한국 민간기관의 역할 변화 - 설문지 분석

북한이탈주민이 1948년 처음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탈주민의 정착에 대한 제도적, 물질적인 지원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2003년 현재까지 4천10명이 한국사회에 정착했고, 특히 2001년 이후 연간 1천 여명으로 대폭 증가함에 따라 정부만의 지원으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증가하는 수에 따라 이탈주민은 체제, 경제적 부적응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간 모두 152건의 법규 위반, 최저생계비수준의 수입으로 인해 빈곤의 위험에 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를 대신한 민간기관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고 현 상황을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 가지 가설로 풀어나갔다.

인 접근으로 풀어나가기 힘들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현재 이탈주민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 민간기관 중 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 연계되어 있는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 및 홈페이지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문항은 모두 11개이며 민간기관의 성격과 사업내용, 민간기관 간 연계성과 차별성, 민간기관의 내실성, 자원봉사자의 참여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민간기관은 이탈주민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자원봉사자의 참여 증가가 가설1의 민간기관 비중증가는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가설2, 가설3은 민간기관이 차별적이지 못한 점, 운영비용부족과 프로그램의 단기성, 운영자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부분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민간기관의 과제는 이탈주민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기관의 통합성 증대와 적능위원의 활용을 통한 자원봉사인력의 전문성 증가, 전문적인 민간기관에 직업교육 위탁, 지속적인 진로 상담이 필요할 것이다.

△가설1=이탈주민의 정착에 한국 민간기관의 비중이 증가할 것인가. △가설2=민간기관을 통한 자원봉사자의 참여가 기대되고 지역사회에 정착하는데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큰가. △가설3=자원봉사자는 통일 이후 북한주민과 남한주민의 통합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입국자 유형의 변화와 근본적인 심리적 차이에 원인이 있다. 가족인국자의 증가로 인한 여성·청소년·노인인구 증가, 노동자 출신 증가, 학력수준 저하, 그리고 한국주민과의 이질감이 그것으로. 인간 소외, 직업의 질적 수준 저하, 경제적 상실의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런 점은 대개 정부차원의 제도적

민간기관은 사회통합의 중요한 자율적 행위자로서 독자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한국민과 이탈주민의 연대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제시한 몇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의 협조, 자원봉사자들의 참여 등 증가와 이를 통한 이탈주민과 봉사자간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가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현재는 물론, 통일 이후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수상소감

시행착오 끝에 얻은 깨달음의 결과

여름에 글쓰기를 시작해서 벌써 늦가을이 찾아왔다. 그동안 참 많은 고민을 했다. 처음 주제로 선택했던 '민권화되는 이탈주민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다양화에 대한 문제점과 방안'을 거치며 주제선택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다소 시행착오를 거쳤던 것이다.

지구를 지키는 큰 이론보다는 현실 문제에 대해 나의 기준에 맞게 해석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논문을 쓰게된 계기를 마련해 준 동아리, 그리고 내년에 대를 이어 글을 쓰게 될 후배들에게 피부로 느껴지는 가까운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말하고 싶다.

누군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대학생은 대학생 수준에 맞는 주제를 선택해야 한다." 그 말을 듣고

끝으로 항상 후원해주시는 여러 선배님들과 동아리 후배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정준환(사과대 정외4)

* 학술상 당선작품들은 본사 홈페이지 (<http://dgupress.dongguk.ac.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웃돕기 사랑나눔 바자회

함께해요 우리~ 나뉘어 사랑~

동국참사랑봉사단은 교수회, 노동조합, 총학생회와 공동으로 동국가족 여러분의 집안 이웃저국 버리기엔 아깝지만 쓰지 않는 헌 물건들과 평소 아끼시는 애장품을 모아 사랑나눔 바자회를 개최코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이웃돕기 사랑나눔 바자회 개최 일시
가. 일시 : 2003. 11. 21(금)11:00~17:00
나. 장소 : 도서관 앞
 2. 물품 기증 기간 : 2003. 11. 20(목)까지
 3. 기증 품목 : 옷, 신발, 가방, 베타어, 생활잡화, 장식품, 주방용품, 소형가전/전기제품, 아동용품, 책, 음반/비디오, 스포츠용품, 소형 가구 등
 4. 기증 장소 : 동국참사랑봉사단
 5. 기증 방법 : 동국참사랑봉사단 방문이나 전화연락(3049, 8661) 주시면 곧 달려가겠습니다.
 6. 수익금 활용 : 생활이 어려운 본교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및 불우이웃 후원
 7. 후원 : 아름다운 가게
- * 값싸고 좋은 물건이 많으니 꼭 한번 찾아주세요 따뜻한 나눔과 교류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8. 문의 : 전화 2260-3049, 8661

동국참사랑봉사단 · 교수회 · 직원노동조합 · 총학생회

자원절약 캠페인 공모전

자원의 소중함에 대한 동국인의 의식을 제고하고 자원절약에 관한 참여의식과 실천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동국 가족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1. 주제 : 교내에서 사용하는 전기, 물, 유류, 종이, 화장지 등 각종 자원절약
2. 응모부문 및 제출규격
가. 표 어 : 제한 없음
나. 포스터 : A3 size
다. 디자인 : A3 size
라. 플래시 애니메이션 : 3분이내
3. 시상 : 금상 1점(디지털 카메라-올림푸스/ C-350Z), 은상 3점(문화상품권 5만원), 동상 4점(문화상품권 1만원)
4. 유의사항 : 응모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표절할 경우 시상 취소
5. 안내사항 : 선정된 작품은 캠페인용 스티커 및 포스터 제작 배포 예정임.
6. 접수기한 및 접수처 : 2003년 12월 12일(금), 학생복지실 ☎ : 2260-3048
7. 주최 및 주관 : 학생처 학생복지실, 총무처 총무팀

학생처 학생복지실 · 총무처 총무팀

건학100주년 D-900일 기념 일류동국 도약을 위한 포럼

- 일시 : 2003년 11월 20일(목) 14:00~16:30
- 장소 : 동국대학교 90주년기념 문화관 덕암세미나실
- 문의 : 동국대학교 건학100주년기념사업회 (02-2260-3120, 3122)

동국대학교의 2006년 건학100주년 D-900일 기념으로 우리 대학의 지난 100년을 회고하고 현재를 재 점검하여 앞으로 나아가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일류동국 도약을 위한 포럼'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이 '일류동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 : 13:30~14:00
2. 개회인사 : 14:00~14:10
3. 주제발표 및 토론 : 14:10~16:30
 - ▶ 사 회 : 홍승기(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 ▶ 제1발표 : 동국대학교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오국근(동국대학교 명예교수)
 - ▶ 제2발표 : 지금 동국대학교는 어디에 서 있는가 이현정(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 ▶ 제3발표 : 일류동국 도약을 가로막는 요소는 무엇인가 김봉현(동국대학교 광고학과 교수)
 - ▶ 제4발표 : 일류동국 도약을 위한 동국의 감성을 살려라 문병호(중앙일보 시사미디어 대표이사)
 - ▶ 토론 및 질의응답
4. 폐회 : 16:30

동국대학교 건학100주년기념사업회

제5기 특별과정 수강생 모집 이벤트·컨벤션 전문가 자격증 과정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Event Management Certificate Program

최고 부가가치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이벤트·컨벤션 분야의 전문가 양성 과정으로서 전 세계 13개 유명대학에서 공동개발하는 국제자격증(CEM) 과정 국제스페셜이벤트협회(ISES)공인 미국조지워싱턴대학 제공 공동프로그램

교육특성 및 특전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이 개발하고 세계13개 유명대학이 프로그램 컨소시엄 구성하여 동시에 개설
- 미국 국제스페셜이벤트협회(ISES)에서 인준한 조지워싱턴 대학 Event Management 자격증 수여
- 미국 GWU 출신교수 및 최고 전문가 중심의 강사진 구성
- 국제회의 기획전문가(PCO) 국제자격시험에 대한 상담 및 지도

교육강사진

- 국제수준의 국제최고의 학자 및 현장실무경험가 - 강사진의 이력은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 * 프로그램 상담 : 이준영교수 ☎ 02-2260-8853

교육내용

- 필수과목 : 이벤트기획론, 이벤트제작, 연출, 이벤트마케팅, 이벤트관리론
- 선택과목 : 국제회의론, 전시·박람회론, 기업이벤트, 결혼·연회기획론, 정장·장차이벤트, 공연기획론, 지역문화이벤트

교육기간

- 1년 과정 : 2004년 1,2학기(매학기 13주) - 수업일시 : 수~금요일 오후 6:30 ~ 9:40

모집요강

- 모집인원 : 00명 - 응시자격 : 대학재학생 이상
- 원서교부 및 접수 : 2003. 11. 17(월)~11.27(목), 경영대학원 교학부
- 제출서류 : 지원서(소정양식)부(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전형일시 및 방법 : 2003. 11. 29(토) 10:00, 서류심사 및 면접

이벤트 홈페이지 <http://www.koevent.or.kr>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 ☎ 문의 : TEL (02) 2260 - 3106 ~ 7 FAX (02) 2267 - 8021
-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graduate.dongguk.edu/ba>

시 장원 - 박소란(예술대 문창3)

창작수업이 끝난 강의실에 앉아

부르주아 냄새가 나는 노교수의 뒤를 따라
 옆구리에 시론을 낀 학생들 차례로 흘러나가면
 빈 강의실은 조심스런 숙제처럼 남겨진다
 무심한 바람이 닫힌 문을 활키고
 그 활켜어진 자국이 아프게 시리다
 언제부턴가
 어둑해진 창 밖 수척한 은행 한 그루
 물끄러미 내 눈을 들여다본다
 웅크린 가지나 살갓을 드러낸 뿌리가
 아주 사소한 듯 흔들릴 때마다
 내 몸도 따라서 가볍게 흔들리다가
 문득 그 아래
 습작처럼 구겨진 이파리를 줍고 싶다
 사는 것엔 저마다의 방패가 필요한 법이라고
 지독하게 구린 열매 몇 알 달고 선
 나무의 등쪽한 마음을 읽고 싶다
 나무가 자꾸만 바람 쪽으로 기울 때마다
 내 몸도 따라서 가만히 기울이다가
 분주히 찾아드는 추운 계절의 소리를 듣는다
 웅색한 상처가 금세 들통 나고 이젠
 내 몸 어딘가 구린 열매 몇 알 달고 설 차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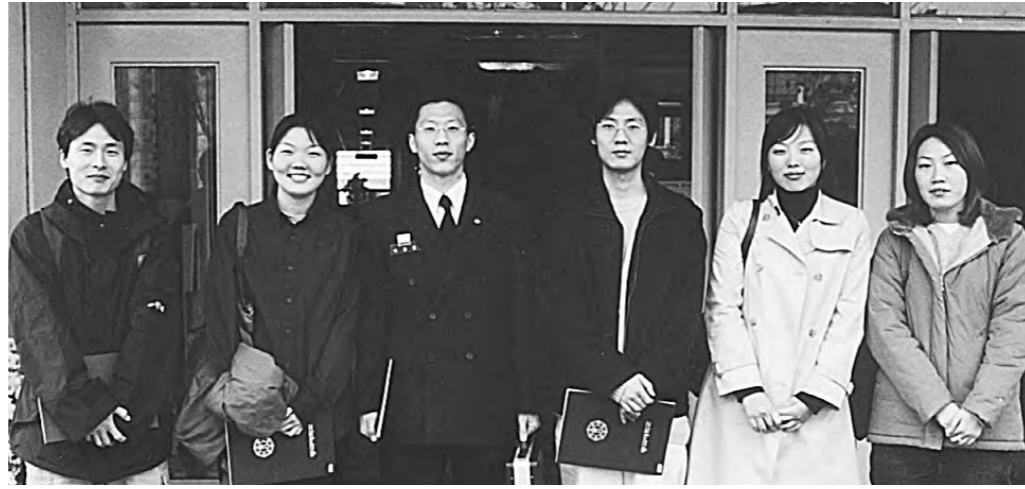
수상소감

습작 부지런히 이어나갈 터

한동안 시를 쓰지 못했다. 나는 한동안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며 지냈다. 정말이지 그런 줄 알았다. 고질적인 위염을 앓으며 며칠을 누워 보낸 어느 날 저녁, 아침으로 대체 내가 뭘 먹었나를 떠올리다가 문득 더 이상 내가 시를 쓰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떠올리고는 몸서리쳤다. 뇌리를 스치던 갈치조림과 달걀말이 사이에서 나는 다시금 시를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시를 쓰고 있지 않은 나는 몸보다 마음이 웅색했다. 나는 일상의 가장 아픈 자리에서 시의 뿌리를 키우고 싶고, 어느새 그 가지가

내 키를 훌쩍 넘어 자랄 수 있도록 더 부지런히 쓸 것이다. 며칠 전 다시금 병원 침대에 누워 면목 없어 하시던 어머니께, 이제야 감사를 전한다. 글 속에서 사람의 냄새를 맡게 해주었던 동국문학회 식구들과 문과대 친한 동기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그리고 훈련소에서 열심히 구르고 있을 광석이에게도 하루빨리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다. 끝으로 부족한 작품을 뽑아 주신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박소란(예술대 문창3)



왼쪽부터 희곡·시나리오 장원 김지원(문창3), 시 가작 선사인(예술대 문창2), 소설 가작 박철홍(문창4), 소설 가작 전한성(국문3), 희곡·시나리오 가작 최문애(문창3), 시 장원 박소란(문창3) 양.

심사평

시 부문

당선작 절실한 자기 정황 엿볼 수 있어

“어느 해보다 응모편수가 많습시다”라는 말이 없혀 건네 받은 작품들은 그 많은 편수만큼이나 개성도 다양했고 수준들도 서로 달랐다. 모든 작품들을 몇 차례 꼼꼼히 읽었다. 그 결과 선택하는 사람 손에 끝까지 남은 작품들은 세 사람의 것. 우선 작품 ‘祭’의 2편은 글 쓰기의 상당한 훈련은 미더웠으나 작품의 수준이 고르지 않았다.

다만 ‘祭’의 경우만 높은 완성도 탓에 선의로 밀어내는데 꽤나 망설여야 했다. 가작으로 가린 ‘흰나비가 날아오는 날이면’은 수돗가에서 빨래를 하며 흰나비를 매개로 돌아간 할머

니를 떠올린다는 내용이 다소 범속하게 보였지만 말에 대한 감각이나 글의 짜임새 등이 다른 작품들에 비해 좋았다. 앞으로의 힘찬 분발을 당부하고 싶다.

당선작 ‘창작수업이 끝난 강의실에 앉아’는 무엇보다도 쓴 사람 자신의 정황이 절실하게 묻어나 있어 좋았다. 강의실 밖 은행나무를 매개로 웅숭 깊은 자기내성을 보이는 점도 믿음직했고 말의 운용도 나무랄 대목이 별로 없었다. 앞으로의 진일보와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도 좋을 터이다.

홍신선(예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소설 부문

응모작 많았지만 대학생 특유의 신선함 아쉬워

제18회 동대문학상 소설 부문에 응모된 작품은 모두 11편이었다. 응모편수가 예년에 비해 다소 증가한 까닭은 최근 몇 년 동안 문학 창작 관련 강좌가 현저하게 늘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인생사가 대체로 그렇듯이 양적 증가와 질적 상승이 항상 정비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11편의 응모작이 모두 고만고만한 크기의 도토리 같아서 특별하게 눈에 띄는 작품은 찾기 어려웠다.

대학생 특유의 실험정신이나 도전의식을 내장한 작품이 없었다는 점이 무엇보다 아쉬웠고, 형편없이 빈곤한 어휘력과 상식을 배반하지 못하는 평범한 상상력은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11편의 응모작 가운데 그나마 소설적 형상화에 성공한 작품은 ‘죽제비의 누명’, ‘두더지’, ‘해무도’, ‘봉정숙 헤어샵’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들 작품도 부적절한 어휘 선택과 비문의 사용, 모호한 작중인물의 성격과 지리멸렬한 사건의 전개 등과 같은 치명적인 결함을 하나 둘씩은 가지고 있었다.

이러하면 어떤 작품에서는 ‘선친(先親)’이란 단어의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어휘가 잘못 사용되고 있었고, 또 다른 작품에서는 군사정권시절의 고문기술자가 노숙자로 전락하게 된 과정이 필연성 없이 서술되고 있을 뿐이었다.

시골의 어리숙한 시인지망생을 화자로 내세운 ‘봉정숙 헤어샵’은 약간의 입담과 익살로 소설 읽는 재미를 제공하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 입담과 익살은 삶의 이면을 통찰하는 재치나 지혜로까지 승화되지 못하였고, 풍자와 조롱의 대상을 잘못 선정했다는 결정적인 약점을 해결하지 못했다.

그리고 심의 티켓다방에서 일하는 여성화자와 실명한 한 사내의 만남을 다룬 ‘해무도’ 역시 구성이 산만하고 인물 성격이 애매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 두 작품을 가작으로 뽑은 것은 응모자의 소설에 대한 애정이 다소나마 느껴졌기 때문이다. 축하하며, 여기서 자족하지 말고 더욱 분발 정진하기 바란다.

장영우(예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시 가작 - 선사인(예술대 문창2)

흰나비가 날아오는 날이면

수돗가에 조그리고 앉아서
 케케묵은 스타킹을 빨다

스타킹을 조물락거리며 비비는 손등 위로
 그녀가 느닷없이 팔랑이며 왔다
 몇 해전 새하얀 머리로 떠났을 때 만큼이나
 하얀 날개를 달고 찾아 와서
 아니라는, 아직 멀었다는 날개짓으로 잔소리다
 거품기 가지지 않은 손을 뻗어 잡으려 할 때
 꾸지람만 덩그러니 남기고 잘 있으란 말도 없이
 이웃집 나무 사이로 성큼성큼 사라지는 그녀를
 바라보며

나의 눈동자에 찡하게 아지랑이 피어오른다

햇빛 한 가득 차 있는 마당
 전기줄 따라 하늘을 가르는 빨래줄에
 메리야스 사이로 언뜻 언뜻 보이던
 오이저 같은 할머니의 젓가슴을 널면
 어린시절 가슴에 박힌
 욕쟁이 할마이의 매서운 문장들이
 저릿하게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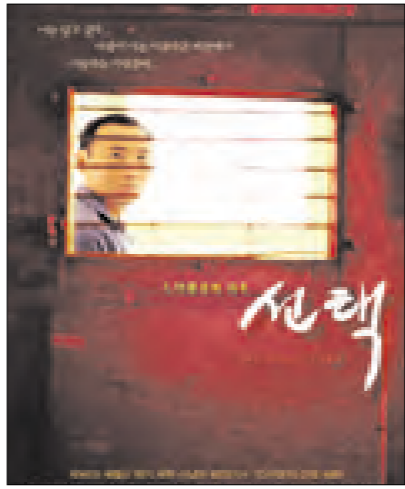
장원 당선작이 선정되지 않은 소설부문은 지면화하지 않습니다. 시나리오 부문은 다음주에 실립니다. 문학상 당선작품들은 본사 홈페이지(http://dgupress.dongguk.ac.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매체비평

영화편

선택

“역사가 만든 감옥 그곳에서 찾은 자유”



비전향 장기수 김선명의 삶을 그린 영화 '선택'.

영화계가 오랫동안 꺼려왔던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대담하게 건드린 영화 '선택'은 “당신의 생각이 반대하지만 당신의 생각을 억압하는 이들과 싸울 것”이란 불테르의 경구로 시작한다.

이어 차가운 감옥의 이미지와 함께 “이 루어지지 않더라도 꿈은 꿀 것”이라는 김선명의 나지막한 내레이션. 감옥 안에서 비로소 자유로운 그의 꿈이 바로 선택의 대상이다. 이 영화는 ‘감옥 갈 작’으로 시나리오를 썼을 만큼 민감한 소재를 다뤘을 뿐 아니라 지난 88년 서울대 총학생회 조국 통일위원장을 역임한 배우 김중기가 주인공 역할을 맡아, 제작 초기부터 많은 이들의 주목을 끌었다. 물론 거기에는 영화라는 매체가 가진 영향력을 통해 가져져 온 한국사의 진실이 들춰지기를 바라는 다소 정치적인 바람을 가진 이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실존 인물을 극화한 여는 영화처럼 주인공을 영웅화시켰으리라는 추측과 달리 ‘선택’은 매우 담담하게 ‘김선명’이란 인물을 그려낸다. “복과 남을 먼저 혼인시켜 놓고 하려고 본인은 아직 총각”인 그는 5.16 당시 ‘남한의 모스크바’라고 불리는 대전형무소에 모인 백범의 좌익수 중 한 명으로 45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낸 인물이다. 영화는 사회주의나 통일에 관한 사상적인 설명을 배제하고 인간 김선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영화가 ‘2003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은 이유도 ‘색깔’을 차치하더라도 충분히 감동적인 휴먼드라마라는 점 때문일 것이다. 특히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간헐’ 이들의 몸부림은 극적임과 동시에 사실적이다. 육체적 폭력은

물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소녀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교화 방송, 어머니를 생각나게 만드는 때론 밥상, 아한 차림의 여자 등 전향을 유도하는 갖가지 방법은 폭력성의 극치를 보여준다. 끊임없이 문자를 갈구하고 벽을 통해 자신들의 언어로 소통하는 장기수들의 모습은 “감옥에서의 가장 큰 고통은 문자를 보지 못하는 것”이라는 ‘옥중서한’ 서준식의 말을 떠오르게 한다. 한편 작품성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에도 영화가 전국 20개의 상영관에서만 개봉한 것은 유감이다. 작품 자체보다는 배급량과 마케팅이 관객과 영화와의 만남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은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선택 살리기 운동과 예술영화 전용관의 높은 객석 점유율 등 ‘관객의

힘’ 덕택에 통런 가도에 합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선택’은 국가보안법과 정치수배자가 여전히 존재하는 지금의 현실과 맞닿아 있어 감상으로 그치기엔 ‘불편한’ 영화이다. 김선명이 ‘한낱 종이 한 장’인 전향서를 쓸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자신의 이념을 지키는 수단이자 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각인시켜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또한 “선택은 어느 한쪽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쪽을 버리는 것”이기에 그는 세월이 흐르고 형무소의 처우가 개선되어도 여전히 ‘빨갱이’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를 억압하는 ‘오태식’의 손에 묻은 붉은 피가 쉽게 지워지지 않듯이 말이다. 김하나 문화부장 sellyone@dongguk.edu

화폐에 담긴 문화 풀어보기

화폐는 통화로서의 기능적 측면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시각예술 품으로도 한 몫을 하고 있다. 화폐 도안의 주 소재로는 일반적으로 인물초상, 건축물 등이 많이 쓰이고 있으며 동식물을 화폐도안의 소재로 사용하는 국가도 있다. 우리나라 현용 은행권의 경우 앞면에는 인물 초상, 뒷면에는 앞면의 인물과 관련된 건물이나 주도안 소재로 사용되고 있고 부소재로 투호·버루·촉우기가 은행권 앞면의 좌측에 있다.

문화 유산 도안화

1950년 6월 한국은행이 설립된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은행권 도안의 소재가 된 인물은 이승만·세종대왕·이순신·이이·이항 등이 있다. 건물로는 협성대·남대문·도산서원·오죽헌·경회루·경복궁 근정전·독립

문·과고다 공원·한국은행 본관·현충사 등이 이용되었고 식물로는 무궁화가 사용되었다. 기타 해금강 총석정·거북선·한국은행 회장·성화(聖火)·봉화(烽火) 등이 있으며 은화(隱書)로 석굴암 여래좌상(石窟庵 如來坐像) 모습이 최초의 1만원권(1973년 발행)에 사용되었다. 한편 주화는 해방이후 1959년 10월에 처음으로 발행됐다. 주화에 새겨진 도안의 주 소재를 살펴보면 인물로는 이승만과 이순신, 건축물로는 다보탑과 거북선, 동식물로는 학·비이삭·무궁화가 사용되었다. 화폐가 갖는 상징성을 이용해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발행되는 기념주화를 통해서도 더욱 다양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다. 건축물로 다보탑·불국사·거북선·남대문·경회루·독립문·명동성당·서울올림픽 주경기장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농악·제기차기·민속무·널뛰기·민속시름·가면극·그네타기 등의 전통놀이도 접할 수 있다. 또한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혼천의·물레·청자비용형주자(靑磁飛甕形注子) 등도 기념주화에 새겨져 있다. 이처럼 기념주화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홍보하고 나아가 문화적 특성까지 알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1973년 9월부터 발행된 우리나라 은행권에는 화폐의 도안으로 사용된 문화재의 이름을 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화폐에 사용된 문화유산 중에는 거북선·독립문이 여러 권종 및 화종에 자주 사용되었는데 이는 민족의 정체성 확립과 애국심 고양을 위한 것과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시대 사회상 반영

이와 같이 화폐 도안은 시대의 역사와 문화

를 대변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화폐는 사회 활동에 있어 빠질 수 없는 요소이다. 때문에 우리는 화폐를 교환 수단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그 안에 새겨진 도안의 사회·문화적인 의미까지 더불어 인지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외국인에게 한 나라의 화폐는 기념품의 가치를 지니며 그 나라 자체로 인식되기도 한다. 우리가 외국 여행을 할 때 그 나라의 화폐를 수집·소장하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교환 수단으로 보기엔 화폐가 갖는 의미는 너무나도 크다. 그래서 시대의 변화와 함께 화폐에 담긴 도안 역시 변화하였고, 그러한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김성용 한국은행 발권국



역사 사회 문화
녹색화폐
가치를 재는 ‘최도’의 의미만을 갖는 화폐의 개념에 반기를 든 새로운 형태의 지역화폐가 등장해 화제다. 함양에 자리잡고 있는 ‘녹색대학’을 후원하기 위해 세워진 ‘그린네트워크’에서 발행하는 ‘녹색화폐’는 녹색대학 공동체, 그린네트워크 제휴 기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 화폐는 ‘사랑’을 단위로 하며 관련 기관에서 만든 물품 사용자들의 일대일 교환 방식으로 이용된다. 거래주체간의 상호 동의가 있어야 거래가 이루어지며 물품에 대한 온·오프라인상의 정보교류를 필수로 하고 있다. 순수한 자급 자족적 교환수단으로 일반 현금이 갖고 있는 이자의 기능을 제한한 것도 눈여겨 볼만한 점이다. 실제로 이러한 지역화폐는 사회 곳곳에서 이용되고 있다. 서울시 송파구의 경우 주민들간에 ‘송파머니’를 만들어 상호 서비스를 주고 받는 송파 품앗이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녹색화폐의 경우 아직 홍보 부족으로 그 사용이 일부 기관에 한정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그린네트워크 화폐담당자 김민욱 씨는 “다른 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 사용을 더욱 확장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지역화폐 사용은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켜주고 지역문화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색머니, 뭐니?
사이버머니
인터넷 사용이 증가하자 온라인 상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사이버머니’의 이용이 늘고 있다. 사이버머니는 온라인 상에서 정보나 콘텐츠를 매매할 때 이용료로 지불하는 가상 화폐이다. 또한 요즘은 전자상거래 및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회원들에게 마일리지 형태로 금액을 적립해 실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사이버머니는 이용자들에게 실제 현금인 아니라는 인식 때문에 금액의 정도에 대한 이해가 일반 화폐보다 적은 것이 사실이다. 한편 온라인 게임에서 일부 게이머들은 사이버머니로 구입하는 아이템 등을 오프라인에서 현금 거래해 사회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머니에 대한 일정한 가격 산정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일부 업체가 아이템 가격 폭리를 취하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특정 온라인 게임이 환급성이나 사행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서비스 중지’는 물론 사업자 구속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정책을 내놓았다. 또한 아이템 현금거래를 격정하는 일부 게임 업체들도 자발적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이버머니를 사용하는 주체인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아닐까.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화폐여 ‘금녀’ 문패를 내려라!
가부장적 의식 반영된 현 도안 ... 여성 넣으려는 움직임 활발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화폐 속 인물은 이순신·이항·이이·세종대왕이다. 조선시대 위인으로 꼽히는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남성’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화폐에 왜 여성은 없는 것일까. 현재 통용되는 화폐는 1970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당시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선정된 인물의 초상을 도안한 것이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시대나 성을 제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은 가부장적인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보여준다. 지난 2001년 한국은행에서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서 화폐 도안의 선호 인물 10위 내에 여성인물은 5위 유관순과 7위 신사임당 두 명 뿐이었다. 이는 과거의 여성이 사회 진출에 제약 받았을 뿐만 아니라 활동 업적 또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오늘날에도 여성 위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낸다. 반면 외국의 경우 어렵지 않게 화폐에서 여성을 만날 수 있다. 영국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초상이 담겨있으며 유로화로 통용되기 전의 독일 화폐에는 여성 작가 ‘아르네’,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클라라 슈만’, 프랑스에는 과학자인 ‘퀴리부인’ 등 다양한 분야의 여성이 등장한다. 또한 일본은 내년에 발행되는 5천엔권에 메치시대 여류소설가 ‘히구치 이치요’를 넣는다. 이는 일본 화폐에 주도안으로 등장하는 최초의 여성이라 눈길을 끈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화폐에 여성 인물을 넣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동덕여대 김경애(여성학) 교수는 ‘여성인물을 화폐에! 시민연대’를 발족하고 다양한 관련 활동을 진행중이다. 또한 내년 1월 31일까지 서울 ‘성곡미술관’에서 열리는 ‘여섯 사진 작가-여섯 개의 코드 읽어보기’ 전시회에 서는 페미니스트 포토 아티스트 박영숙 씨가 화폐에 역사 속 여성인물을 재현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유럽의 경우 오래전부터 여왕, 과학자 등 사회 활동을 한 여성이 많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적 제약에 의해 여성 활동이 크게 두드러지지 못했다. 하지만 그러한 배경 속에서도 자신만의 분야를 개척한 여성 위인을 분명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소수이지만 이러한 활동은 그동안 인식되지 못했던 많은 여성 인물이 발굴되는 계기이자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변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많은 분야에서 여성의 능력이 인정받고 있는 시대인 만큼, 사회상과 문화를 보여주는 화폐에 여성 인물이 담길 날도 그리 멀지 않은 듯 하다. <민> mh705@dongguk.edu

메아리
신 탐관오리
▲“이쁘구나. 내 수청을 들라!” “아니됩니다.”
때는 조선시대. 전라도 남원의 사또가 한 여인에게 수청 들 것을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여인은 이를 거부하고 결국 옥에 갇히게 된다. 이는 고대소설 ‘춘향전’의 한 부분이다. 소설에서 ‘변 사또’는 자신의 욕심과 이득을 위해 고을의 처녀에게 수청 들 것을 강요하는 등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정치는 제대로 하지 않는 소위 ‘탐관오리’이다.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규명 특검법’이 지난 10일 가결됐다. 특검법안 반대를 밝힌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의원 192명이 참석해 진행된 표결에서 찬성 183명, 반대 2명 등으로 과반수를 넘겼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4일 한나라당이 “검찰이 한나라당 100억원 수사에만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특검법 처리가 시급하다”는

이유로 법안을 국회에 상정한 뒤 6일만에 일어난 일이다. ▲특검법안이 이렇듯 빠르게 통과되자 사회 각층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한나라당이 법안을 상정할 당시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비자국 의혹’을 벗어나기 위한 도구로 특검을 이용했다는 의혹을 쉽게 뿌리칠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실질적으로 법안 상정 시기의 검찰수가 정대철·이상수 의원을 소환하고, 대

선 당시 ‘노무현 캠프’의 차명 계좌를 조사하는 등 확대국면에 돌입하는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로 제기된다. 또한 민주당에서 특정한 이유 없이 이번 법안에 긍정적 입장을 취했다는 것은 당리당략에 의한 ‘아합’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과거법 특검법안에 대해 노 대통령은 지난 13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뒤 특검을 받아 들이겠다”는 조건부 거부권 행사를

를 시사했다. 춘향전에서 변 사또는 온갖 악행이 널리 알려져 결국 ‘암행어사’에 의해 파직 당하게 된다. 계속되는 국회의원의 ‘자신을 위한’ 정책결정. 그들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또다시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에만 연연한다면 국민의 불신은 새로운 암행어사가 왜 그들을 파면시킬 것이다. 김진성 기획·사진부장 yearam@dongguk.edu